

## 아즈마코후지

수천년에 걸친 화산활동에 의해 만다이아사히 국립공원에 있는 아즈마 연봉의 굴곡진 지형이 형성되었고, 아즈마코후지(해발 1,707m) 등의 봉우리들이 탄생했습니다. 아즈마코후지는 격렬한 분화를 반복한 결과, 화구 측면에 응고된 용암과 화산재, 화산쇄설이 퇴적되면서 1,500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원뿔 모양의 형상과 좌우 대칭을 이루는 경사가 후지산을 닮았다 하여 아즈마코후지(작은 후지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즈마코후지는 비교적 젊은 화산(약 6,000년)이지만, 매우 오랫동안 분화하지 않았고 앞으로 분화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아즈마코후지의 경사면은 완만한 토사와 조약돌, 스코리아(화산암)로 덮여 있어 황량합니다. 식생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지만, 생명력이 강한 일부 종들은 이 건조한 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이킹을 하러 이곳에 간다면 큰 바위에 자라는 이끼나 호장근, 쯤새풀 등 추위에 강한 식물의 존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즈마코후지의 남쪽 기슭에는 갓나무가 자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서히 산 경사면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것에서 생태 천이(화산 분화 후 완만하게 식생이 돌아오는 것)를 엿볼 수 있습니다.

조도다이라 주차장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화구벽에 도착합니다. 화구벽 주위를 걸으면 후쿠시마 분지와 조도다이라 습원이 내려다보이는 파노라마와 깊이 약 70m, 직경 약 500m의 화구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화구벽은 약 1시간 정도면 한 바퀴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 대부분이 울퉁불퉁한 자갈길이고 강풍이 부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화구 부근을 걸을 때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